

뜨겁게 만남시다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
6월 12일(수) 14시, 국회 앞

지난 여름,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라며 ‘시럽급여’ 운운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최근 다시 정부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신청하는 사람의 수급액을 최대 절반이나 삭감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재차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고 있다. 노동자를 불안정 비정규노동으로 몰아넣는 자본, 양질의 일자리 정책에 눈감은 정부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다.

대통령은 배달라이더 등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없다. 우리가 누누이 외쳤듯 노동자성 인정 범위와 사용자의 책임범위를 넓히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면 된다.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수 있다면 더 안전한 현장,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노동자는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다. 약자를 위한다는 말의 속셈은 노동권의 자리를 노조혐으로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까지 노동자·농민·민중 민생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 폭주가 멈추지 않는다. 타임오프 시정지시 등 노조탄압이 노골적이다.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해 권리를 찍어누를지 알 수 없지만 그 전에 멈춰세워야 한다. **6월 12일, 금속노조 1만 간부**의 목소리로 국회 앞을 뜨겁게 달구자.

그리고 **6월 19일, 경기지부 투쟁선포식**으로 뜨겁게 모이자. 한국호야전자지회는 올해 2월 고용안정 합의를 이뤄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나 사측은 반강제적인 인사조치를 시작했다. 조직력을 무너뜨리고 사측 원하는대로 노동자를 주무르겠다는 뻔한 의도다.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열기를 끌어모으기 위해 경기지부 사업장 현장순회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 교섭&투쟁의 처음과 끝을 함께 엄호하는 건 당연하다. 무엇보다 우리 너머 모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목소리를 다시금 모아내는게 절실하다.

경기지부 투쟁선포식
6월 19일(수) 14시, 한국호야전자



5.18 광주정신, 기억하고 이어가는 청년들



경기지부 청년조합원 24명이 <5·18 광주민중항쟁 청년기행단>을 꾸렸다. 민족민주열사묘역, 5·18 국립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민중항쟁의 열기와 슬픔을 품은 전일빌딩, 옛 전남도청을 탐방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원과 역사를 찾는 여정이기도 했다. 저항과 공동체정신. 이를 잊지않겠다는 발걸음은 금남로에서 진행한 <제44주년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까지 이어졌다.

현대위안안산지회 김성규 교육선전부장이 전국노동자대회 개회식에서 금속노조를 대표해 투쟁선언을 했다.



영화로도 보고 TV에서도 보았지만 항쟁의 장소로 와보니 그 날의 역사가 더욱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열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그 정신을 기리며 본받고 나아가겠습니다. 뜻 깊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제이엠지회 박대희 문화부장



임을 위한 행진곡이 왜 민중의 노래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5.18 광주 민중항쟁의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뜻 깊었다.

삼성전자서비스경기지회 이정주 조직부장



언뜻 들은 광주 민중항쟁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며 선배 동지들의 정신을 알게 되었고 계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레동현화성지회 윤성우 문화체육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기행을 통해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스제이엠지회 최호재 문화위원



5.18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계양전기 지회 정대영 청년2부장

처음으로 여쭙소

경기지부 여성위원회는 5월 중순부터 1,500 여성조합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합원 대다수가 제조업 남성인 금속노조 안에서 여성조합원은 노동조합 덕에 소중한 권리를 알고 지켜갈 수 있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접근과 참여가 쉽지만은 않다.

‘여성조합원은 참여가 낫다’는 게 조합의 근심이지만, 여성조합원이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무엇이 힘든지, 노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이 노동조합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지 본격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다.

이에 여성위원회는 설문조사 ‘여쭙소’를 통해 우리 여성조합원들이 지금 어떤 생애주기에 있는지, 가족 돌봄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여자라서 겪는 일터에서의 고통이 있는지(노동안전보건), 노동조합을 어떻게 느끼고 더 가까워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을 묻는다.

5월까지 500여 명의 여성조합원이 참여했다. 최대한 많은 여성조합원의 생각과 마음을 ‘여쭙고’ 난 뒤에는 결과를 지부 전체에 공유하고 여성조합원의 목소리가 더욱 다양하게 반영되는 지부 활동을 찾아갈 예정이다.

